

엘레나 뽀니아토프스카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전복적 이미지: 『오 하느님, 당신을 볼 수 없을 때까지』의 젠더인식과 양성성(androgyny)을 중심으로*

조 혜 진

고려대학교

조혜진(2018), 「엘레나 뽀니아토프스카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전복적 이미지: 『오 하느님, 당신을 볼 수 없을 때까지』의 젠더인식과 양성성(androgyny)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9(2), 137-156.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엘레나 뽀니아토프스카의 대표작인 『오 하느님, 당신을 볼 수 없을 때까지』의 중심인물 예수사(Jesusa)가 재현되는 모습을 통해 그녀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모습과 그 전복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주인공 예수사의 젠더에 대한 인식과 양성적 특성(androgyny)이다. 그녀는 남성중심적인 멕시코 전통사회에서 가부장제도에 의해 억압당하고 휘발되는 여성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팔루스중심적 사회가 갖는 위선과 한계를 깨닫는다. 그 결과, 그녀는 가부장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젠더규범을 거부한다. 예수사는 전통적인 멕시코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수동성, 유순함, 인내를 거부하고 때로는 성의 구별을 흐릿하게 한 채,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차츰 자신이 두 젠더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동의 범주를 확장하고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향유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예수사는 성격 면에서도,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면으로 여겨지는 품성과 여성적인 면모를 두루 드러내면서 남성/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세계관을 초월하고 전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의 행동양식은 가부장 사회에서 생존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써 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도정으로 읽힌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이론과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적용하였다.

핵심어 엘레나 뽀니아토프스카, 『오 하느님, 당신을 볼 수 없을 때까지』, 여성인물, 젠더, 양성성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1999).

I.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멕시코 작가 엘레나 뽀니아토프스카(Elena Poniatowska: 1932-)의 소설 『오 하느님, 당신을 볼 수 없을 때까지 *Hasta no verte, Jesús mío*』(1969)에서 여성인물들이 재현되는 모습, 그 중에서도 중심인물인 예수사 빨랑까레스(Jesusa Palancares)가 재현되는 모습을 중심으로 그녀의 이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빼노-오헤다를 포함한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1998, 145)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페미니즘 작가이자 ‘봄’세대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수준의 문인으로 인정받는 뽀니아토프스카의 작품 중에서 이 소설이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Jørgensen 1994, 28)¹⁾ 주요인물 예수사 빨랑까레스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약 30년간 꾸준히 뽀니아토프스카의 작품에 등장하면서 그녀의 문학적 도정을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²⁾ 예수사 빨랑까레스는 자신의 일대기를 순회하는 증언

1) 이 작품은, 실제로 멕시코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공식 역사에서 축소되고 은폐된 다수 여성들의 경험을 다룸으로써 공식 역사에서 배제되고 망각되었던 여성들의 기억을 복원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까를로스 푸엔테스의 『아르페미오 꼬루스의 죽음』과 대응 및 보완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평가를 받는다(Gustavo Pellón 2006, 301).

2) 예수사는 호세피나 보르께스라는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한 주인공인데 작가는 고향의 빨래터에서 우연히 호세피나 보르께스의 과거사를 듣게 된다. 호세피나는 멕시코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솔다데라(soldadera)’였다. 그 후 뽀니아토프스카는 호세피나와 여러 차례에 걸쳐 면담을 가졌고, 면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집필하였다. 이런 점에서 『오 하느님, 당신을 볼 수 없을 때까지』는 증언소설 혹은 역사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지금까지 관련된 연구는 대개 이 작품을 증언소설로 규정해야 할지, 역사소설로 정의해야 할지, 역사적 성격을 띠는 순수소설로 간주해야 할지를 논하면서 장르적 성격을 다룬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장르의 형식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 연구들을 꼽을 수 있다. Gwen H. Stickey(2004), *Gender, Genre, and Pseudoautobiography in Spanish Picaresque Narrative and the Spanish American Testimonial Novel*, Indiana University; Beth E. Jørgensen(1994), *The Writing of Elena Poniatowska: Engaging Dialogue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또한 국내에서 뽀니아토프스카에 대해 수행된 연구논문으로는 다음 2편이 있다. 배지완(2009), 「엘레나 포니아토프스카와 여성의 몸: 『하늘의 피부 *La piel del cielo*』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Vol. 29, pp. 355-374; Gerardo Gómez Michel(2015), “Religiosidad rebelde como sujeto trágico en *Hasta no verte Jesús mío* de Elena Poniatowska”,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6, No. 3, pp. 1-21.

소설 형식의 『오 하느님, 당신을 볼 수 없을 때까지』(1969) 이후 에세이 「헤수사의 삶과 죽음 *Vida y muerte de Jesusa*」(1978), 연대기 『빛과 달, 위성들 *Luz y luna, las lunitas*」(1994), 소설 『라스 솔다데라스 *Las soldaderas*』(1997)에서 지속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로 재현된다. 이런 점에서 헤수사는 한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이상의 위상을 지니며, 뽀니아토프스카의 문학세계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문학적 분신으로 보인다. 따라서 헤수사가 처음 등장한 작품에서 재현되는 모습을 분석하는 것은 뽀니아토프스카의 세계관과 작품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³⁾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공 헤수사의 젠더에 대한 인식과 양성적 특성(androgyny)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구성원을 폭력으로써 응징했으며 멕시코혁명전쟁에서도 남장을 한 채 직접 무기를 들고 전투에 참가했다. 그러면서도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등 가부장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로 여겨지던 모습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면모를 고루 드러내면서 두 성의 정체성을 넘나드는 인물로 보인다. 이는 헤수사가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주체가 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시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이론과 수행(performance) 개념을 통해 주인공이 주체화되는 과정과 양성적 정체성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II. 주인공의 젠더인식과 정체성의 변화

1. 버틀러의 젠더와 수행성 개념

이 연구에서는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과 수행(performance) 개념을 통해 주인공 헤수사의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버틀러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

3) 이후의 작품에서 재현되는 헤수사의 모습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로 결정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구성주의자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도 모두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한다(Butler 2008, 7). 섹스는 생물학적 몸의 차이, 젠더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동일시 양식, 섹슈얼리티는 성적 실행이 발생하는 근원적 욕망으로 설명되었으나 버틀러는 이런 전통적인 구분법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세 개념이 결국은 모두 젠더라고 주장한다(Butler 2008, 7). 그리고 젠더 주체 또한 본질이나 내적 핵심이 없는 허구적, 환상적 구성물이며 고정된 젠더 주체성은 없기 때문에 “젠더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며 이는 ‘여성’ 젠더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Butler 2008, 20-21).

이때 젠더의 특성은 수행적(performative)으로 나타난다. 버틀러는 수행성(performativity)이라는 용어를 통해, 젠더가 무대 위에서 배우가 행하는 퍼포먼스처럼 언제나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녀는, 우리가 “젠더가 곧 드러나게 될 어떤 내적 본질로 작동하고 있다는 기대, 젠더가 기대하는 바로 그 현상을 결국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Butler 2008, 55)를 갖고 있지만 젠더의 수행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제시한다. 첫째, 젠더의 수행성은 젠더화된 본질에 대한 기대가 젠더 자신을 자기 외부에 가져다놓게 된다는 메타렐시스⁴⁾ 주변을 맴돌고 둘째, 수행성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라는 것이다(Butler 2008, 55). 즉, ‘남성적(masculine)’ 혹은 ‘여성적(feminine)’ 같은 용어는 가변적인 것이며 이런 용어는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표명되면서 젠더의 수행적 구조(performative structure)의 한 차원을 구성한다는 것이다(Butler 2016, 23-24). 버틀러는 정체성이란, 주체가 내면화한 이미지와 환상을 스스로에게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역설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헤수사의 수행성을 통해 그녀의 정체성의 성격은 어떠한지, 그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헤수사와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4) 메타렐시스(metalepsis)는 하나의 환유가 다른 환유를 지시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비유적으로 쓰인 단어나 문장을 새로운 맥락 안에서 다른 뜻으로 바꿔 쓰는 방식을 일컫는다(이안 뷰캐넌 2017, 177).

2. 가부장제도의 위선에 대한 고발과 비판

『오 하느님, 당신을 볼 수 없을 때까지』는 노년의 헤수사가 자신의 일대기를 술회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화자인 헤수사는 “내가 지상으로 돌아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이번 환생만큼 고통스러운 적은 결코 없었다”(HJ, 11)⁵⁾라고 말문을 열면서 남자형제이자 남편에게 죽임을 당한 자신의 전생에 대해 말한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받은 계시에 따르면 그녀는 전생에 왕비(reina)였는데 낙타에 타라는 남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달아났기 때문에 남편에게 총살당했다고 한다. 남편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헤수사를 “타락한 여자”(HJ, 14)라고 비난한 후 그녀를 죽인다. 영적 존재와 대모(代母) 등 성당에서 헤수사의 계시를 접한 이들은 헤수사의 남편이 그녀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그녀의 “보호자”라고 지칭하고 “네 남편이잖니, 너를 돌봐주는 사람...”,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이번 생까지 계속해서 너를 인도하는구나”(HJ, 13)라면서 그를 옹호한다. 이들은 한 여자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연신 ‘보호자’로서의 그의 역할만을 강조한다. 이는 세계를 남성과 여성, 이성과 감성, 정신과 몸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면서 남성-이성-정신을 여성-감성-몸보다 우위에 두는 가부장 사회의 세계관을 드러낸다. 이러한 세계관은,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고 지배하되, 여성이 반역하거나 타락할 경우에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성의 처형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이분적 세계관은 로만가톨릭교를 포함한 기존의 멕시코 사회, 제도에 의해 공고하게 옹호되며 강화된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의 행동 및 이동의 자유는 ‘보호’라는 명분하에 억압당하고 인권과 생존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더욱이 헤수사는 “수백 년의 세월이 술하게 지났을 텐데 그는 아직도 나를 제 보호 없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HJ,

5) 이 논문에서 활용한 판본은 Poniatowska, Elena(2002), *Hasta no verte, Jesús mío*, Barcelona: Plaza & Janés editores인데 앞으로 인용할 때에는 ‘HJ’라는 약자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14)는 말로써 가부장제의 ‘보호’라는 명목의 족쇄가 많은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헤수사는 자신이 전생에 ‘reina’, 즉 ‘여왕’ 또는 ‘왕비’였다고 말하는데 이는 한 사회에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신분이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남편 겸 남자형제의 지속적인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그에게 종속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상황은 가부장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헤수사의 언니 빼프라(Petra)도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보호자에게 희생당한 인물이다. 빼프라는 빨래를 걷으러 나갔다가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납치당한다. 그녀는 “짐작처럼” 화물열차에 던져졌고, 그 후 3년간 매일 밤 구타당한 끝에 헌병에게 구출되었다.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는 남성이 욕망하는 대상이고 여성의 생명, 인권, 자유의지는 남성의 그것과 대등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성을 종속시키거나 억압, 처벌, 학대하기도 한다. 빼프라는 3년간의 감금과 학대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헌병과 결혼한다. 그러나 그녀는 수년 간 자기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온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기 일보직전의 상황에 처한다. 빼프라는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에게 칼부림을 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후 충격으로 사망하고 만다. 헤수사는 빼프라에 대해 “언니는 매우 강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 3년간 매일 밤 괴롭힘을 당하며 지내는 걸 상상해보라! 어떠한 여자라도 체념했을 것이다. [...] 그러나 빼프라는 결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HJ, 40)라고 평한다. 그러나 남편의 칼부림 사건이 “그녀에게는 최후의 결정타”(HJ, 42)였고, 결국 빼프라는 놀라움과 충격으로 죽지만 남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헤수사는 ‘보호자’ 때문에 강제결혼하게 된다. 그녀는 멕시코 혁명에 투신한 아버지를 따라 까란사(Carranza)의 부대에서 생활했으나 아버지와 의절과 화해를 반복하며 염증을 느낀 나머지 혼자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한다. 고향으로 가려면 화물선을 타야 하는데 아버지는 딸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거부하면서 딸의 신분문제를 까란사 부대의 부대장에게 위

임한다. 부대장은 15세가 채 안 된 어린 여자를 남자 선원뿐인 화물선에 보호자 없이 승선시킬 수는 없다면서 헤수사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장교와 그녀를 강제로 결혼시킨다. 결혼 자체도, 결혼상대자도, 결혼방식도, 모두 그녀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헤수사가 “군인들이 일개 여자의 동의에 무슨 관심이나 있겠는가?”(HJ, 109)라고 한탄한 것처럼 군대는 남성중심주의가 가장 극대화되어 작동하는 사회고, 군인은 가장 극단적인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일원이다. 낸시 프레이저는 남성 시민-군인-보호자 역할이 국가 및 공적 영역과만이 아니라 가족 및 직장 같은 사적 영역과도 연결된다고 말한다(Fraser 2017, 60). 남성 시민-군인-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들은 여성 시민이자 피보호자를 타자화하고 배제하고 억압한다. 혁명군인 남편은 다른 여자를 구할 수 없는 곳에서만 헤수사와 육체관계를 맺을 뿐 자신이 집을 비울 땐 헤수사를 집안에 감금하고, 그녀의 행동을 제약하며, 급기야 구타와 폭력을 일삼는다. 헤수사의 표현대로 “그의 행동은 파렴치한 일종의 학대고 [...] 그는 내 삶을 이토록 불행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HJ, 110)며 분노와 원망을 토로한다. 이처럼 헤수사를 포함한 여성인물은, 사회로부터 여성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받는 남성들에게서 진정한 ‘보호’를 받은 적이 없다.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오히려 ‘보호자’로부터 자행되는 억압과 폭력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혁명군인 남편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언제 강간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고통 받는 희생자로 그려진다.

또한 헤수사는 어린 시절부터 가부장 사회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망각, 배제되거나 억압당하고 희생되는 것을 목도한다.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사망한 어머니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헤수사의 어머니는 유령을 본 후 놀라 갑작스레 사망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8일 만에 아빠는 다른 여자를 얻어”(HJ, 25) 그녀로 하여금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아버지는 새로운 여인을, 육아 때문에 구한 가정부라고 소개했지만 그녀가 아버지랑 같이 잠을 잤고, 아버지를 남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헤수사는 아버지에게 기만당했다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망 직후 최소한의 애도기간도 없이 바로 성적 파트

너를 맞았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자리가 다른 여인으로 대체되면서 어머니가 부당하게 망각되고 휘발되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헤수사의 아버지는 아들만 데리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으며 막내인 헤수사가 누구에게 맡겨지는지 꽤념하지 않는다. 헤수사는 열 살 남짓한 어린 나이에 마치 삐까로(pícaro)가 배고픔 때문에 이 주인, 저 주인을 섬기듯 이 집 저 집에서 일하며 먹을거리만 겨우 해결한다.⁶⁾ 아버지는 보호자,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헤수사가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다. 새어머니는 버릇처럼 불이 붙은 장작으로 헤수사를 때렸고, 어느 날 헤수사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에는 칼로 그녀를 찔러 상처를 냈다. 헤수사가 아버지의 애인과 살기등등하게 싸움이 붙은 적도 있었다. 군부대 사람들이 헤수사가 학대당했다고 증언하고 아버지는 방임죄로 처벌당했다. 헤수사가 “아버지는 여하한 거리의 여자가 자기 딸인 나를 모욕하도록 용인한 죄목으로 벌을 받았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아버지는 아무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HJ, 90)고 실망감을 드러낼 정도로 아버지는 딸에 대한 학대에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인물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고, 딸을 돌보거나 보호하는 것은 항상 뒷전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헤수사의 아버지는 아들 에밀리아노(Emiliano)를 억지로 결혼시키고 멕시코혁명 때 군인으로 입대시키는 등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고, 에밀리아노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입대한 후 군대에서 어이없는 죽임을 당한다.

헤수사는 멕시코 전통사회의 가치를 옹호하는 종교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다. 가톨릭이 원죄에 대한 교리에 의거하여 여성들에게 편중된 죄의식을 부여하는 한편⁷⁾ 남성 성직자들과 여자 사제들이 신도들에게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고 고발한다.

6) 니암 손턴은 이 작품을 “어머니를 여원 문맹소녀의 피카레스크 이야기”라고 평가한다(Niamh Thornton 2006, 89).

7) 고메스 미첼은, 헤수사가 계속 죄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나쁜 여자”, “죄 많은 여자”, “암캐”라고 지칭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위악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여성을 억압하는 가톨릭 교단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전략적 행위라고 지적한다(Gómez Michel 2015, 1).

성부, 성자, 선지자 엘리야, 성신(聖神), 사제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가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미사, 결혼식, 세례식에서 많은 돈을 번다. 그들은 영적 행위에서 민중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기도실의 역할을 지지한다. 반면 여자사제, 영적 계시, 주춧돌, 기둥들은 도움을 주지만 헌금을 바라지 않는다. 그녀들은 성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너에게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너에게 많은 걸 해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반면 가톨릭교회에서는 “우리가 너에게 미사를 베풀어주니 너의 왕국으로 오라”고 말한다.(HJ, 18)

헤수사의 평에 따르면, 남자 신들과 남자 사제들은 자신이 베푸는 것에 대해 생색을 내며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반면 여자 신들, 여자 사제, 심지어 여성명사의 사물들은 베풀지만 그에 대해 과시하지 않으며, 자기들이 베푸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 헤수사는 “가톨릭교회에서는 장례의식에 관을 놓고, 성상도 만들고, 향로를 열심히 흔드는 등 온갖 장례용품들을 설치하고 의례행동을 행하면서 장례의 외적 형식에 공을 들이지만 정작 고통스러워하는 가련한 영혼을 불러서 위로하지는 않는다”(HJ, 18)면서 가톨릭의 위선을 비판한다. 유일신 종교인 가톨릭에서는 수 세기 동안 하느님을 ‘왕(King/Señor)’ 혹은 ‘아버지(Father/Padre)’와 같은 남성명사로 표현해왔고, 하느님과 남자사제가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여성 신도들에게는 따뜻함, 온순함, 희생정신을 미덕으로 강조하며 남성중심주의를 강화해 왔다. 이와 같이 헤수사는 팔루스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소위 여성의 ‘보호자’임을 자처하거나 여성의 ‘보호자’라고 여겨지는 존재로부터 보살핌과 안전을 담보받기는커녕 기만과 배제, 소외, 억압, 심지어 인권 유린과 학대를 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가부장제의 위선을 고발·비판한다.

3. 젠더규범의 거부와 양성성에 대한 우호적 태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심인물은 가부장제의 가치관에 의해 여성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여성의 존재가 휘발되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여러 차례 경험한다. 헤수사는 여성이 억압되고 배제당하고 망각되는 이유가 남성중심사회가 남성

과 여성에게 부과하는 규범 때문이라고 여기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젠더 규범을 수행하기를 거부한다. 일례로, 여성이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가사노동에 대한 거부감을 들 수 있다. 헤수사는 “올케는 내가 손으로 반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토르띠야를 만들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평생 토르띠야 만드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HJ, 37)라며 여성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가사노동인 요리하기를 거부한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남자 같았다고 술회하는데⁸⁾ 이는 ‘보호자’의 허울 하에 수탈되고 억압당하는 여성이 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녀는 고분고분하고 유순하게 행동하는 착한 여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가부장제의 가치를 내면화하기를 거부한다. 헤수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남자처럼 행동했다고 회상하면서 젠더 역할에 저항하는 자기를 계속해서 “나쁜 여자”, “한 마리 사나운 짐승”, “암캐(perra)”, “암말(yegua)” 같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길들여지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위에 길들여지는 대신 일탈적인 행동을 보이며 저항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헤수사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은 남성이 행사하는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지만 헤수사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남성에게 폭력을 되갚아줌으로써 자신과 다른 여성들을 보호한다.

“나랑 붙자, 덤벼봐, 하지만 올케는 두 번 다시 때리지 마!”

오빠는 올케를 한 대 때렸지만 두 번은 때리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두꺼운 장작을 집어 들었다. 몸으로 싸워 오빠를 이기기는 어려웠지만 올케를 보호했고 오빠를 장작으로 때렸다.(HJ, 37)

이렇듯 헤수사는 여성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남성에게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8) 헤수사는 “나는 아주 사내아이 같았어. 항상 전쟁놀이, 돌팔매질, 돌차기 놀이, 팽이 치기, 구슬치기, 레슬링, 돌을 던져 도마뱀을 죽이거나 이구나나를 바위에 던져 죽이는, 순전히 남자들이 하는 놀이를 좋아했지”(HJ, 24)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여아(女兒)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써 직접 폭력을 응징하는 등 순종적이고 온순한 여자아이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가부장제의 가치를 답습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헤수사 주변의 여성인물 다수가 ‘보호자’의 구타나 살해에 희생당했기 때문이다.

헤수사도 자기를 강압적으로 대하며 학대를 일삼는 남편 때문에 고통 받는다. 남편은 질투가 심한 나머지 헤수사를 집안에 감금한 채 혼자 있을 때조차도 옷을 벗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헤수사가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성 행위를 할 때뿐이다. 헤수사는 “나는 남편의 통제 하에 있었고, 목욕도 할 수 없었다. [...] 나는 얼굴에 두건을 쓰고, 미라처럼 온몸을 모두 뒤덮은 채 잠을 자곤 했다”(HJ, 126-127)라고 술회한다. 남편은 헤수사가 아무하고도 말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행동을 구속하고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의처증 때문에 그녀를 총으로 때리기도 하고 마체떼로 찌르기까지 한다. 계속되는 학대에 헤수사는 남편에 대한 공포, 무기력감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보호자’가 아니라 결국 자기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녀는 자기를 또다시 구타하려는 남편에게 “세상이 거꾸로 바뀌었어. 이제 당신은 명령하지 마. 이제부터 명령은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앞장서, 어서. 그게 싫으면 여기에서 총으로 쏘버리겠어”(HJ, 131)라고 총으로 위협한다. 남편이 처음으로 겁에 질려 그녀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보고 헤수사는 “작업복에 권총을 숨긴 바로 그날부터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HJ, 134)라고 술회하면서, 생존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고분고분하고 수동적인 태도 대신 거칠고 과격하더라도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터득한다. 손턴은 이 사건을 “남편에 대해 힘과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현 상황을 전복시켰다는 것을 깨달은 것”(2006, 93)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자신이 명령하는 주체로 변할 것이라고 선언하기 전에 “세상이 거꾸로 바뀌었어”라고 말함으로써 남녀의 권력 문제가 비단 개인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남성중심적인 멕시코 전통사회에서 타자로 억압당하기를 거부한 채 생존권을 지키면서 자기 행동의

주체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헤수사는 가부장제의 폐해를 단순히 남성과 여성 간의 대립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부장제의 가치를 내면화한 남성도 가부장 사회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오빠 에밀리아노를 언급한다. 헤수사가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 복종하지는 않겠다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반면 에밀리아노는 가부장의 권위에 복종하는 인물이다.

아버지가 뒤돌아 말했다.

“주둥이를 확 꺾버린다.”

“자, 그럴 수 있으면 해 보시던가요...”

나는 겁내지 않았다. 나는 누구도 겁을 낸 적이 없다. 나는 겁을 먹는 게 너 무나 싫다. 그래서 아빠와 대립하곤 했다. 에밀리아노는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고분고분했다. 그러나 아빠를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유일한 자식이라는 점이 오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말이 존재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온순한 말은 나쁜 사람을 끌어들이고, 착한 사람은 개자식을 끌어들인다.” (HJ, 70)

헤수사는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남성중심주의적 규범에 도전한다. 그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성적으로 대상화되지 않기 위해, 특히 전장에서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への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취한다. 헤수사가 혁명기의 많은 군인들에 대해, 특히 판초 비야 부대의 대원들에 대해 “그(판초 비야)는 절대 아내를 맞은 적이 없었다. 그는 가장 젊은 여자를 낚아채 끌고 간 후에 그 여자가 지겨워지면 그녀를 쫓아내고 다른 여자를 덮치곤 했기 때문이다”(HJ, 126)라고 증언하듯이 혁명을 빌미로 싸우는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성노리개처럼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성으로부터 자행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랑 군부대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내가 함성을 지르면서 두려움을 내보냈기 때문이다”(HJ, 14)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멕시코 혁명군에서 생활한 이유를 술회한다.

헤수사가 멕시코혁명군의 부대에서 생활한 초반기에 여자들, 즉 솔다데라

(soldadera)들은 전초부대와 가장 먼저 전방에 도착해 병사들의 음식을 준비하거나 후방에 남아 식량 보급품을 지켰다. ‘솔다드(soldad)’는 아라곤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본래 군인들이 전시(戰時)에 여자를 하녀로 고용하려고 사용한 일종의 급료를 가리킨다(Thornton 2006, 90). 급료를 받으려고 군대에 간 여자를 솔다데라라고 한다. 군대는 병사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병사들의 옷을 세탁하고, 그들의 상처를 보살펴주는 일을 담당한 여자들에게 의존했다. 다시 말해, 솔다데라는 부대와 함께 이동하며 군인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주고, 함께 있으면서 격려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유지시켜준 수많은 여자들이다. 뽀니아도프스카는 “솔다데라들이 없었다면 군인들은 먹지도, 자지도, 싸우지도 못했을 것이다”라고 평가한다(Poniatowska 2006, 14).

혜수사도 다른 솔다데라처럼 보급품을 지키면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그녀는 모제르총과 권총을 다루며 전장에서 싸운다.

여자들은 거의 전장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페드로는 에스페노사 이 포르도바 장군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나를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나는 눈에 띄지 않도록 남자 옷을 입곤 했다. 삼각형의 술과 모자를 써서 머리를 가렸다. [...] 나도 주둔지에 있어도 되었지만 주둔지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직접 보고 듣는 일은 좋은 것이다. 사실이다, 그건 좋은 일이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방식을 실행하기로 결심했고,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이 좋았다.(HJ, 143-144)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후방에 남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면서 경험의 폭을 확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남자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젠더를 흐릿하게 한다. “나는 형클어진 머리털을 위로 올리고,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었다. [...] 나는 남자 행세를 했다”(HJ, 202)라고 말한 것처럼 혜수사는 멕시코 혁명전쟁 시절에는 자신의 여성성을 삭제하고 남성성을 수용했다. 이때의 남성성이란 앞 절에서 살펴본 가부장제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중심주의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남성처럼 보임으로써 “아무도 그녀에게 손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면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얌전하고 정숙한 여성이 되기를

기대하는 전통적인 젠더규범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를 수 있는 자유를 담보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버틀러가 “드래그야 말로⁹⁾ 젠더의 표현적 양식과 진정한 젠더 정체성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내부와 외부 심리공간이라는 구분을 완전히 전복한다”(Butler 2008, 342)고 주장하는 것처럼 헤수사에게 남자 옷을 입거나 남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내부와 외부의 심리공간을 허물고 스스로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혁명전쟁 이후에도 헤수사는 “나는 가끔 남자 옷을 입는데 그게 참 좋다”(HJ, 244)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더 재미 있고, 남자는 더 자유롭고 아무도 남자를 조롱하지는 않기 때문이다”(HJ, 244)라고 이유를 밝힌다. 이렇게 헤수사는 젠더를 흐릿하게 하면서 두 젠더 간의 엄격한 구분을 전복하고자 한다. 헤수사가 군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젠더의 수행적 구조를 허물고, 남성 시민-군인-보호자의 프레임을 뒤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그래서 헤수사는 “싸우는 법을 안다는 건 좋은 일이다!”(HJ, 134)라고 평한다.

그러나 그녀는 전투에 기여하고 전장에서 공을 세워도 남자는 보상받는 반면 여자는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모순을 목도한다. 혁명을 위해 싸우던 남편이 전사한 후 헤수사는 장군으로부터, 남편 부대의 지휘권을 인계받을 것을 권고 받는다. 그녀가 사령관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전투경험이 많고 전투에 소질이 있기 때문에 부대를 통솔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군인이 아닌 데다 전쟁에 깊은 회의를 느껴 사령관 역할수행을 거부한다. 그녀는 전쟁미망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지만 국가에서는 “당신이 나이가 들었다면 정부가 연금을 지급할 테지만 당신이 너무 젊어서 연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가 없소. 당신은 언제라도 다시 결혼할 수 있는데 고인은 당신의 새로운 남편을 부양해선 안 되기 때문이요”(HJ, 178)라면서 남편의 연금뿐만 아니라 헤수사가 전쟁에 참가한 것에 대

9) 드래그(drag)는 자신의 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성의 옷을 입는 복장전환자, 크로스드레서를 가리킨다(버틀러 2008, 6).

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한다.

심지어 헤수사는 멕시코의 대통령과 직접 전쟁을 벌이지만 멕시코 사회 전반에서 솔다데라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순을 경험한 후¹⁰⁾ 양성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헤수사는 멕시코 혁명기에 여성성을 삭제한 후 남성성을 수용하였으나 그런 미봉책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담보해줄 수 없으며, 여성성을 인정하되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여성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남성과 동등한 욕망을 표출할 수 있고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임으로써 새로운 양성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한 일환으로 그녀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넘나든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의 영역을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역할을 가사와 돌봄 노동으로 한정하지만 솔다데라는 공적 공간에서 보병, 요리사, 세탁부, 군수품 밀수업자, 기자, 스파이, 군 장교, 남자들의 동반자, 창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남자군인들(솔다도)과 마찬가지로 혁명에 기여한다. 손튼이 지적하듯이, 헤수사도 “당시 여자들에게 자기 집에서 일하거나 가정부로 일하는 것 외의 다른 일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여자들은 외출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남자들을 앞선다. 이제 더 이상 여자는 집을 데우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멕시코 혁명전쟁에 여자들이 참전하면서 사적인 시민에서 공적인 행위자로 변화했다고 평한다(2006, 90). 이렇듯 헤수사가 자신을 포함한 솔다데라의 역할을 사적 공간에 머무는 존재에서 공적 공간에서 활동하는 행위주체로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젠더역할의 범주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게 되었다는 의미

10)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은 제사로 시작된다. 작품의 화자는 “언젠가 나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 그 날은 오겠지만 그 날이 와도 알려주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건 사실이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거짓에 의해 살고 있다. 라디오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웃사람들이 하는 말도 거짓말이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무 쪽에도 쓸모없더라도 뭐가 이상하겠는가? 그건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작별인사조차 보내지 않을 텐데 누가 나를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하는가?”(HJ, 9)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솔다데라들의 행보가 공식식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라고 여겨진다.

남성과 동일하게 전투에 참가한 여성들을 남성의 들러리, 배경, 조력자로 한정하고 심지어 위안부로 격하하고 편취하는 멕시코 전통사회에서 헤수사는 사회적 타자로 머물지 않고 남성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자 차츰 행동반경을 넓혀 자유를 향유하는 한편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오롯이 독립한다. 또한 남자들처럼 거친 언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주점에서 남자들과 거나 하게 술을 마시고 술꾼 서너 명을 수월하게 이긴다. 당시는 밤 아홉 시 이후 여자가 집밖을 돌아다니면 체포되던 시절이었고, 심지어 남편이 동행하더라도 혼인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여자만 체포되어 구금되던 시절이었다(HJ, 248). 그러나 헤수사는 주점에서 춤추며 즐기기 위해, 또는 밤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밤에 외출하는 등 당시 멕시코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순종적이고 유순한 여성, 조신하고 얌전한 여성, 가사와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헤수사는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즐거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안 가본 경찰서가 없고, 안 가본 감옥이 없다고 회상한다.

헤수사는 작품 전반기에는 여성성을 흐릿하게 하거나 삭제한 채 남성 젠더를 수행함으로써 더욱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재미있게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존경받을 것이라 여겨 남성 젠더를 동경하고 모방했다. 그러나 그 후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 여성성과 남성성을 고루 갖춘 모습을 이상적이라고 여기게 된다. 여자 같은 남자 돈 루초(Don Lucho)에 대한 헤수사의 평가는 그녀가 양성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드러낸다. 헤수사는 “돈 루초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 여자 같은 남자가 사내다운 남자보다 훨씬 더 선량하기 때문이다.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라는 불행이 그들을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든다”(HJ, 244)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 두 젠더를 고루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돈 루초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에는 여장을 하고 여자처럼 행동하지만 공적 공간으로 나갈 때에는 남자의 옷을 입음으로써 해부학적 섹스와 일치하는 젠더를 연기한다.

헤수사도 차츰 자신이 두 개의 젠더로 인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징을 누릴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녀는 가정부, 포도주 가게,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요리를 하고 고객을 응대한다. 약국에서 약 배달을 하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극진한 보살핌을 제공한다. 또한 사창가의 술집에서 술 내기로 말술을 마시며 돈을 벌기도 하고, 다양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기도 한다. 조합의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세탁부로 일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녀는 여러 직업군을 가로지르며 멕시코 전역을 편력한다. 그녀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것이라고 여겨지던 일(군인, 공장인부)과 여성들의 일로 여겨지던 것(세탁부, 요리사)을 다양하게 경험한다. 그녀는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은 채 직접 여러 일에 종사하고 경제활동을 손수 꾸리면서, 즉 빵을 벌어들여오는 가장의 역할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삶에서 더욱 많은 주도권을 쥐게 된다고 실감한다. 그리고 다양한 도시에서 여러 직업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간다.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젠더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의 기호와 욕망에 충실한 채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젠더를 긍정하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해수사는 “나는 차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HJ, 192)라고 평가한다.

해수사가 주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권력과 힘을 전복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차츰 눈뜨면서 이루어진다. 남성 젠더를 모방하면서 자유를 상상하고 추구하는 대신 두 젠더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인격적인 특징을 두루 누릴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녀는 여러 직업군을 가로지르며 멕시코 전역을 편력하면서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것이라고 여겨지던 일과 여성들의 일로 여겨지던 것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회복·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면서 견문과 세계관을 확장한다. 그녀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여성성을 흐릿하게 하고 남성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젠더의 특징을 모호하게 한 채 무성적 특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차츰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긍정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자유와 즐거움을 위해 남장을 하는 등 유흥을 위해 젠더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양성성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본질주의에 대한 거부와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분리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시도

에서 비롯되었으나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영역을 자유롭게 확장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로 여겨진다.

III. 나가며

이 글에서는 여성 화자 헤수사의 시선을 통해, 팔루스중심적인 멕시코 전통 사회에서의 여성인물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은 순종적이고 인내하며 헌신적, 희생적이기를 강요받는다. 여성들은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유를 억압당하고 폭력에 희생당한다. 이에 대한 저항과 반작용으로 헤수사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젠더 역할을 수행하기를 거부한 채 양성성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처음에 그녀는 생존과 자유를 담보하고자 자신의 여성성을 제거한 채 사회에서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수행한다. 성차를 흐릿하게 하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제약을 허물고 두 성 간의 엄격한 구분을 전복시키려는 것이 헤수사의 의도이다. 그러나 여성성을 삭제하고 남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진정한 양성성(androgyny)이 아니라 무성성(asexuality)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여성성을 긍정하고 여성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유희를 위해 남장을 하는 등 양성적인 면모를 보인다. 양성적 모습이 여성으로 하여금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공간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활동하기에 도움이 되며 보다 전인격적인 존재방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공적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에서 부차적인 존재, 남성의 들러리나 배경으로 여겨지지 않고 중심적이고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헤수사는 양성의 긍정적 가치들을 선별적으로 전승하면서 두 젠더를 넘나들으로써 경험의 폭과 행동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양성의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헤수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가부장 사회의 억압 앞에서 매몰될 우려가 있는 여성의 자아를 모색하고,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채 생존하며,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헤수사가 바라는 것은 제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버틀러/주디스(2008), 『젠더 트러블 :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 _____(2016), 『젠더 허물기』, 조현준 옮김, 문학과지성사.
- 뷰캐넌/이안(2017), 『교양인을 위한 인문학 사전』, 윤민정/이선주 옮김, 자음과모음.
- 프레이저/낸시(2017), 『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임옥희 옮김, 돌베개.
- Gómez Michel, Gerardo(2015), “Religiosidad rebelde como sujeto trágico en *Hasta no verte Jesús mío* de Elena Poniatowska”, *Revista Iberoamericana*, Vol. 26, No. 3, pp. 1-21.
- Jørgensen, Beth E.(1994), *The Writing of Elena Poniatowska: Engaging Dialogue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Pellón, Gustavo(2006),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II: el siglo XX*, Madrid: Gredos.
- Pino-Ojeda, Waleska(1998), “Literatura de mujeres, mercado y canon: una conversación con Elena Poniatowska”, *Revista Chilena de Literatura*, Vol. 53, pp. 145-156.
- Poniatowska, Elena(2002), *Hasta no verte, Jesús mío*, Barcelona: Plaza & Janés editores.
- _____(2006), *Las Soldaderas: Women of the Mexican Revolution*, El Paso: Cinco Puntos.
- Thornton, Niamh(2006), “(Trans)gendered Lines in Conflict: Jesusa in Elena Poniatowska’s *Hasta no verte Jesús mío*”, *Bulletin of Hispanic Studies*, Vol. 83, No. 1, pp. 87-102.

조 해 진

고려대학교
sinceridad@korea.ac.kr

논문투고일: 2018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27일

Female Character's Subversive Images in Elena Poniatowska: Focusing on Female Protagonist's Perceptions of Gender and her Androgyny in *Hasta no verte, Jesús mío*

Hyejin Cho
Korea University

Cho, Hyejin(2018), "Female Character's Subversive Images in Elena Poniatowska: Focusing on Female Protagonist's Perceptions of Gender and her Androgyny in *Hasta no verte, Jesús mío*",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9(2), 137-156.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a female protagonist's experience, her identity transfiguration, and her subversiveness in a male-dominated Mexican society in Elena Poniatowska's *Hasta no verte, Jesús mío*. Most of all, this study focuses on gender perceptions and androgyny of Jesusa Palancares, a soldadera. She does not only witness various type of oppression against women in patriarchal society of Mexico, but also she experiences extreme violence that comes from her male protector-soldier-male citizen, in short, from phallocentrism. Observing volatile women as a victim including herself, she condemns the hypocrisy and restraints imposed by social institutions. Consequently, Jesusa rejects gender norms imposed by male-centered society and she challenges gender stereotypes for survival and freedom. Making her gender ambiguous, she tries to break down barrier that limits her behavior. Performing both gender roles, Jesusa gets to realize that she can broaden her behavioral boundary enjoying diverse features a human-being can experience. She incarnates androgyny and as a result she transcends dichotomous way of dividing masculinity/femininity. Her struggle is a journey to survive, to achieve self-fulfillment and to find her true identity. This paper uses Judith Butler's gender theory and her 'performativity' concept.

Key words Elena Poniatowska, *Hasta no verte, Jesús mío*, Female characters, Gender, Androgyny